

“이제껏 만난 악역 중 최고...10kg나 찌워”

갈취한 돈으로 호의호식한 몸 표현 현실 싸움 같은 리얼한 액션 담아 마동석 형님에 과의 받듯 많이 배워 영화 연출도 욕심, 계속해 나갈 것



손석구(39). 최근 가장 '핫'한 배우로 떠올랐다.

지난해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에서 순진하고 어수룩한 캐릭터를 연기한 데 이어 현재 화제를 모으고 있는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투박하고 차가운 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캐릭터의 매력으로 여심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18일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 2'(감독 이상용·제작 박편치퍼펙츠, 흥필름, 비에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살기 가득한 독기를 품은 눈빛의 극악무도한 악역 '강해상' 캐릭터를 완성했다. '이보다 살벌할 순 없다'는 시선이 나올 정도다. 얼핏 전편인 '범죄도시'이 악역 연계상의 장쾌함과 비교될 만하다.

손석구는 수없이 돌려봤을 정도로 "전편인 '범죄도시'의 '전편(진짜 팬)"임을 자임하지만, 윤계상과 장첸 캐릭터를 의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속편이 아닌 독립된 영화라 생각"하고 "새로운 빌런에게만 집중"해 연기했다.

●“이왕이면 진짜 센 악역으로” 돈을 위해 사람을 납치·살해하는 강해상을 그는 “늘 울분에 차 있는 인물”



영화 '범죄도시2'의 새 '빌런'인 손석구는 "위압감이 느껴지도록 무식할 정도로 몸집을 키울" 만큼 캐릭터에 집중했다.

이라 해석하고 접근했다. 캐릭터의 외형 상 위압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차례 태닝"과 "10kg 증량"도 했다.

“갈취한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몸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몸을 키우기 위해 운동도 굉장히 무식하게 했어요. 강해상

이라면 그럴 것 같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벤치프레스 무게를 120kg까지 들어 올렸어요.”

강해상은 그렇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센” 빌런이라고 그는 말한다.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제압당했을 때 관객에게 안길 “통쾌함”도 클 것이라 생각했다.

“한때 악역 제안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피칠갑한 거친 언행의 캐릭터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차라리 '진짜 센' 거 한 번 하고 그만하자' 싶었어요. 그렇게 만난 인물이 바로 강해상이죠.”

●“마동석 형님에 과의”

'범죄도시' 시리즈의 '시그니처'는 역시 액션 장면이다. 첫째도, 둘째도, '리얼함'을 최우선으로 액션 합을 켜다. “말 그대로 현실 싸움”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

“정말 리얼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타격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마동석 형님이) 액션 베테랑이라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한 마동석으로부터 제작과 연출 등 영화에 관한 전반을 “과의 받듯” 배웠다. 지난해 연출작인 단편영화 '생방송'을 OTT WATCH를 통해 선보인 그에게 “감독도 하고 각본도 쓰고 다 해보라”며 용기를 줬다.

“시간 날 때마다 저를 앉혀두고 '너에겐 나와 같은 피가 흐른다'며 영화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실제로 영화 연출은 제가 30대에 했던 일 중 가장 잘 한 일이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예요.”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아이돌 그룹 AB6IX.

에이비식스 '새로운 도전' 다섯 번째 미니음반 발표

'에이 투 비' 선보여... "한 단계 더 올라설 것"

아이돌 그룹 AB6IX(에이비식스)가 또 한 번 도약을 예고했다.

이들이 18일 다섯 번째 미니음반 '에이 투 비(A to B)'를 발표하며 "한 단계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월 스페셜 음반 '컴플리트 위드 유'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새 앨범을 선보이며 팬층을 더욱 확장해 자신들만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다.

이런 바람을 앨범을 통해 고스란히 담아냈다. '에이 투 비'라는 제목을 통해 자신들의 색깔과 매력을 상징적 알파벳 'A'로 표현하고,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도전을 'B'로 내세워 지금까지 정체성을 넘어 한 단계 더 올라가겠다는 굳은 의지로 선보이는 앨범이다.

한 차례 위기를 겪은 뒤여서 더욱 그렇다. 2019년 데뷔한 뒤 엠넷 '프로듀스101' 출신인 멤버 임영민이 2020년 음주운전 논란으로 탈퇴했다. 데뷔 이후 앨범마다 멤버들이 직접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까지 참여해 '완성형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로 활약해왔지만 이렇다 할 대중적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들 워너원 출신 박우진과 이대휘를 주축으로 전용, 김동현이 4인조로 팀을 재구성한 이들은 오랜만에 팬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지만 음악적 변화가 가장 크다"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한 번 더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또 음악 꺼내든 '놀면 뭐하니'... "재미" "식상" 엇갈린 시선

여성 보컬그룹 제작 오디션 한창 앞서 남성그룹·혼성그룹 선보여 비드라마 화제성 조사 1위 올라 기존 멤버 참여...투명성 의문도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여성 보컬그룹 WSG워너비 선발 과정을 그리면서 시청자의 호기심과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사진은 방송인 정준하·하하·신봉선·김숙·유재석(왼쪽부터)이 참가자의 무대를 보고 환호하는 모습. 사진제공 | MBC

“화제성 최고” VS “자기복제 그만”

세 차례 음악 프로젝트로 시선을 끈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또다시 음악 키워드를 꺼내 들었지만 극과 극의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지 방송사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놀면 뭐하니?'는 최근 여성 보컬그룹 멤버를 뽑는 'WSG워너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15명의 참가자가 최종 오디션을 앞두고 있다. 이들 중 최대 12명이 3개 팀으로 나뉘어 실제 데뷔할 예정이다.

앞서 남성 보컬그룹 MSG워너비와 걸그룹 환불원정대, 혼성그룹 싸크시 프로젝트

를 성공시킨 프로그램은 음악 소재, 참가자에 대한 호기심 등을 앞세워 화제물이었던 일대 성공한 분위기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참가자들의 '정체'를 추측하는 재미가 한몫했다. 박봄의 '유 앤드 아이', 빅마마의 '브레이크 어웨이' 등 과거 히트곡을 경연곡으로 선보인 무대도 시청자의 주목을 자극했다.

덕분에 다양한 화제성 차트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엠마스톤' '전지현' 등 참가자들이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비드라마 TV 검색어 이슈 키워드 부문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튜브에서는 관련 영상이 최대 200만 조회수를 넘기며 인기다. 연출자 박창훈 PD는 18일 스포츠동아에 "팀 경쟁의 재미를 높이는 장치

를 많이 준비했다"면서 "이를 통해 이전 프로젝트와는 또 다른 매력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의 시작도 만만치 않았다. 최근 프로그램 공식 SNS에는 "앞선 프로젝트와 다를 바 없다"는 내용의 댓글이 잇달아 달리고 있다. 제시와 신봉선 등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연예인들이 오디션에 다시 나서면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제시를 앞서 환불원정대 멤버로 활약했고, 신봉선은 '놀면 뭐하니?' 고정 출연자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블라인드 오디션이라는 소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멤버의 참여가 오디션의 투명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유재석의 소속사 대표인 가수 유희열, 방송인 김숙 등 익숙한 인물들로 화면을 채워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김새론

아역 배우출신 김새론(22)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새론은 이날 오전 8시경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체할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일주일가량 뒤에 나오는 체할 결과를 보고 혐의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키로 한 SBS 드라마 '트롤리'와 넷플릭스 '사냥개들' 측도 "향후 일정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Y2K 멤버 코지, 한국서 20년 만에 활동 재개

1999년 데뷔한 한·일 합작 밴드 Y2K의 멤버였던 코지가 한국에서 20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매니지먼트 회사인 러브칩스인터내셔널은 18일 "코지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지는 Y2K로 활동 당시 꽃미남 외모 등으로 인기를 끌었고, 이번 솔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그는 솔로 프로젝트 '코지'(COZI) 작업 중이다. 그는 팀 활동이 끝난 뒤 일본에서 펑크 록 밴드를 꾸려 활동했다.

SM엔터 '스마일 뮤직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청소년 음악 꿈나무를 위한 음악 축제 '스마일 뮤직 페스티벌'(SMile Music Festival)을 연다. 2015년 시작한 스마일 뮤직 페스티벌은 음악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14~19세 청소년 5인 이하로 구성된 댄스·보컬 팀이다. 다음 달 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팀은 3개월의 연습 기간에 전문 트레이너의 댄스·보컬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영동·발랄...김태리의 '반전 매력'

일상 공개 유튜브 영상 조회수 폭발

배우 김태리의 '반전'이 화제다.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 속 캐릭터로만 관객과 시청자를 만나온 그가 유튜브를 통해 자연스러운 일상을 공개한 덕분이다. 다양한 작품으로 드러낸 진중한 모습 대신 영동하고 발랄한 매력을 뽐내면서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잡고 있다.

김태리는 최근 소속사 매니지먼트mmm의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거기가 여긴

가' 영상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tvN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인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등으로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가 모든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에 소탈한 매력이 고스란히 담겼다. 운전 도중 자신의 너스레에 스스로 감탄하는 모습이나 자고 일어난 직후 민낯 등이다. 영화 '승리호'에서 호흡을 맞춘 진선규의 집에서 그의 딸과 어울리는 모습도 소박함을 더한다. 확장 시절 쌓은 그림 실력을 발휘



배우 김태리가 유튜브 콘텐츠 '거기가 여긴가'를 통해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매니지먼트mmm 공식 유튜브 채널

해 그린 자신의 캐릭터처럼도 독특함을 살렸다.

예능 무대 출연이 드문 김태리의 영상은 신선함을 자아내며 최대 180만 뷰까지 조

회수가 치솟았다.

주요 장면을 모은 게시물이 SNS 플랫폼에서 인기리에 공유되고 있다. 영상당 5000여 개에 달하는 댓글 가운데에는 "김태리가 이런 캐릭터인 줄 몰랐다"며 놀라는 반응이 많다.

팬들과 소통 방식을 고민한 끝에 거둔 성과이다. 지난달까지 영화 '외계+인',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을 촬영한 그는 오랜만에 얻은 휴가에 영상을 본격적으로 제작했다. 소재와 구성 방식 등도 직접 기획했다.

현재 차기작을 고심 중인 김태리는 '외계+인'이 개봉하는 7월까지 관련 영상을 계속 공개할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